

'KREI리porter' 경남지회 간담회 결과

1.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porter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8년 5월 24일(목) 11:00~15:00
- 장 소: 도리원(경남 창원군)
- 참 석: 총 10명
 - 경남지회 리porter(8명): 권수열, 도진호, 배익선, 이현순, 임태화, 허병문, 전경수, 하건호
 - 연구원 관계자(2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1:30	집합	도리원 (경남 창원군 영산면 온천로 103-25)
11:30~12:30	간담회	
12:30~13:30	점심식사	
13:30~15:00	회원농가 견학	

2. 주요 논의 내용

○ 도리원 소개

- 경남 창원군에 위치한 영농법인 도리원은 HACCP 시설기준에 맞춘 전통 방식의 장아찌를 생산하고 있다. 새순 또는 찻물에 나는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여 양파, 매실, 우엉, 찹쌀, 고들빼기 장아찌 등 120여종의 장아찌를 생산하고 있다.
- 각종 전시회와 세계음식/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정받아 2008년부터 청와대에 장아찌 납품, 농림부 우수체험공간 및 WPL 교육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도리원에서는 창녕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며 일반인은 물론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 및 교육에 힘쓰고 있고 미국, 호주, 베트남 등 해외수출로 장아찌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식품부가 선정한 신지식인 농업인장으로, 전통장아찌 대한명인(사) 한국신지식 농업인 중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아찌 공장과 마주한 농가식당을 운영하는데, 돼지와 오리고기를 메인으로 장아찌를 더한 건강밥상으로 인기가 많다.

○ 경남지역 농촌 현장여론 수렴

- 배익선: 최근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수 등 냉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다. 피해가 크지 않은 때 한 차례 다녀간 조사 외에는 추가 조사가 없었고 냉해를 입어 신고해도 보상 또는 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없으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 피해조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한다. 보상차원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냉해를 막을 대책이나 기온에 따른 영향 등 최소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 전경수: 농업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거나 일관되지 못한 업무 수행 등으로 농업인이 답답한 때가 많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토록 해야 하며, 현장과의 소통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근속년수를 두어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하건호: 농업관측에 따른 수급전망이 실제와 다를 때가 많다. 표본 정비 등 농업관측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리porter 활성화 방안 논의

- 배익선: 농번기에는 간담회 참석률이 저조하여 되도록 농한기에 모임

을 추진토록 하고, 다음 3분기 간담회는 경남 진주시에 류재하 회원님의 농가를 둘러볼 계획이다.

- 이현순: 7월 5일(목)에 리포터 전체연찬회를 개최하므로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회원 농가 순회 견학 추진으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교류할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3. 이모저모

